

방송제 기획 줄거리:

[제목 : ]

기획 - 권우현

촬영 및 편집 -

출연1 - 문태훈 (김현섭)

출연2 - 임수영 (지연진)

출연3 - 정민구 (정서준)

출연4 - 양정인 (강여진)

출연5 - 최옥만 (주승현)

출연6 - 유복희 (신유진)

S#1 (방송국 내부)

(페이드 인)

(모두가 망연자실 해 앉아있다. 그러다, 수영이 사물함을 열어 미션지를 확인한다.)

수영: (한숨을 쉬며) 하.. 안에 종이가 있네. 진짜 말도 안돼..

(수영의 말을 들은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의 사물함을 열어 미션지를 확인한다.)

수영: (미션지를 읽다가 깜짝 놀라) 이게 미션이라고? 진짜 미친 X끼들...

(미션지는 더 이상 평범한 미션이 아니었다. 상대방을 해치기 위한 미션들.)

복희: (미션지를 놓치며) 이.. 이걸 어떻게 해.

옥만: (미션지를 보다가) 정말 미친 곳이군.

민구: (미션지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공..격자..

(미션지를 보는 민구를 바라본 수영. 불길한 마음에 민구에게 한 마디 한다.)

수영: (민구를 보며) 민구 너 공격자야? 너 설마 그 미션 할 생각은 아니지?

(이제 민구부터 차례대로 미션지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민구 미션지: (역할: “공격자”, 미션: ‘타겟을 공격하기’)

수영 미션지: (역할: “타겟”, 미션: ‘공격자로부터 끝까지 살아남기’)

복희 미션지: (역할: “조력자”, 미션: ‘공격자를 도와 상대방을 같이 처리하기’)

욱만 미션지: (역할: “가드”, 미션: ’공격자부터 타겟을 지켜내기’)

(미션지를 차례대로 보여주고, 수영의 말에 민구가 대답합니다.)

민구: 왜.. 왜.. 이런게 진짜 “게임” 아니야?

수영: 아니야, 민구야 정신차려! 우리 다 같이 살아서 나가야지.

(수영이 민구를 설득하던 중 방송이 나옵니다. 방송 내용은 마피아 게임의 룰 변경)

방송: (NR) 모두, 미션지는 확인하셨습니까. 오늘의 미션의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마피아 게임의 룰이 변경된 점에 대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시 후 이 격실의 문이 개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든 문은 봉쇄되어 있습니다. 만약,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할 경우 그 인원은 즉시 이 게임에서 “탈락”처리 됩니다. 현재 시각 오전 10시, 이번 미션은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공격자가 미션을 성공하는 즉시 게임은 미션은 종료 됩니다. 추가적으로 공격자와 조력자 외에는 타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으며, 오늘은 미션이 의심되는 사람을 호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잠겨있던 방송국 내부의 문이 혼자 열린다. 서로 눈치를 보는 민구와 수영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욱만이 재빨리 수영과 복희의 팔을 낚아채 나간다.)

수영: (민구의 눈치를 보는 수영)

복희: (수영과 민구를 번갈아 보고 있다)

욱만: (그런 수영과 복희의 팔을 잡고 재빨리 문밖으로 나간다.)

민구: (한 발짝 늦게 반응한 민구,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 가위를 발견해 들고 뒤따라 나간다)

(페이드 아웃)

S#2 (건물 어딘가 은신처)(오전 11시)

(페이드 인)

(건물 어딘가 은신처에 숨어있는 수영, 육만, 복희 수영이 겁에 질려있다.)

수영: 민구가 저런 애였다니.. 너무 무서워...

(수영은 민구에게 관심을 보였던 자신의 지난 날들을 회상합니다. 1화 S#3과 2화 S#1를 참고해주세요.)

복희: 육만, 나는 왜 데리고 왔어?

육만: 너가 민구와 같이 있으면 너도 위험하다.

복희: 그렇구나.. 근데 그때는 왜..

육만: (복희의 말에 의문을 가지듯이) 그때? 그게 무슨 소리지?

복희: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건데?

육만: 6시까지, 이곳에서 버틴다.

(그렇게 은신처 숨어서 버티고 있는 3명. 시간의 흐름을 표현해 주세요. 시간이 흘러 오후 3시가 됩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수영. 육만이 참으면 안되겠냐고 묻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는 수영. 결국 같이 화장실로 향한다.)

수영: 나 화장실 가고싶어.

육만: 조금만 참아라, 수영.

수영: (약간 신경질을 내며) 가야겠다니까?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못 가? 뭐, 여기서 싸기라도 할까?

육만: (잠깐 침묵을 하다가) ... 그럼 같이 가도록 하지. 복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복희: 나도.. 가고 싶은데...

(수영과 육만은 화장실로 향한다. 그리고 수영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고, 육만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볼 일을 무사히 끝내고 나오는 수영과 복희. 다시 그들은 은신처 돌아간다.)

육만: (주변을 경계하며) 먼저 들어가라. 나는 잠깐 주변을 살피겠다.

수영: 짜증나.. 집에 가고싶어..

(그렇게 먼저 은신처로 들어가는 수영과 복희. 육만은 밖을 살핀다. 그런데 갑자기 안에서 들리는 수영의 비명소리)

육만: (밖을 두리번 거리고 있다)

수영: (비명 소리) 까악!!

육만: (놀라며) 뭐야!

(안에는 민구가 수영의 뒤에서 목을 조르며, 가위로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옆에 쓰러져 있는 복희.)

민구: 이.. 이제 왔네?

수영: (목이 졸려 숨을 가빠하며) 커..커흑.. 이거 놔..

육만: (큰 소리로) 그거 놔라, 민구!

민구: (소리를 지르며) 명령하지 마! 너도 마음에 안 들었어. 너도 똑같아 문태훈이랑...

(육만이 서서히 민구에게 다가가려 한다. 그러나 이를 눈치채고 육만이 다가오면 바로 수영을 찌르겠다고 협박하는 민구.)

육만: (서서히 민구에게 다가가며) 진정해라, 민구 나는 너를 무시한 적 없다.

민구: 뭐해라, 저거해라 하지 말라고. 확 찔러버린다.

(육만과 민구가 대치하던 중 수영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던 민구의 팔을 세게 깨문다. 민구가 아파서 수영을 놓쳤지만, 금방 다시 수영의 뒷덜미를 잡고 그대로 가위로 그어버린다. 그 사이 다시 재빠르게 민구를 제압하는 육만.)

수영: (민구의 팔을 깨문다.)

민구: (아파서 소리를 지르며) 으악! (수영을 다시 낚아채어 가위로 긋는다)

수영: (가위에 긁히고) 아악!

육만: (어느새 민구에게 다가와 민구를 제압한다.)

민구: (육만에게 제압당하고) 으아아악!

육만: (민구를 제압하며) 너는 너무 선을 넘었다.

(육만이 민구를 제압하고 있던 도중, 방송이 나온다. 방송은 공격자가 미션을 완료했으므로 오늘의 미션이 종료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더 이상 서로간의 공격이 금지된다는 내용.)

방송: (NR) 오늘의 미션은 '공격자'가 미션을 완료했으므로, 미션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플레이어간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즉시 "탈락"처리 됩니다.

민구: (육만에게 제압 당하며) 이.. 이거 놔. 탈락 되고 싶어?

육만: (몸에 서서히 힘을 빼며) 쓰레기 X끼.

(육만이 민구를 풀고 수영에게 다가간다.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수영과 쓰러진 복희를 부축해 방송국 내부로 돌아가는 육만. 페이드 아웃.)

S#3 방송국 내부

(페이드 인)

(수영과 복희는 쇼파에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테이블에 혼자 앉아서 곰곰이 무엇을 생각하는 듯한 육만. 그리고 갑자기 혼잣말을 한다.)

육만: (누군가가 들으라는 듯) 이 게임을 하는 목적이 대체 뭐지!

(그러나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육만은 더 깊은 생각에 빠지고,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다시 시간이 흘러 쇼파에서 일어난 복희. 육만과 눈이 마주친다.)

복희: (쇼파에서 서서히 일어난다.)

육만: (복희와 눈을 마주치며) 일어났나.

복희: 어떻게.. 된거야.. ?

육만: 수영이 당했다.. 민구에게

복희: (깜짝 놀라며) 수영이가 당했다고..?

육만: 그렇다. 화장실에 갔다온 사이 민구가 이미 은신처에 들어와 있었다.  
복희, 너도 쓰러져 있더군.

복희: 아... 나도 당했어. 민구한테 목이 졸려서..

육만: (육만은 아무 말이 없다)

(둘이 전의 상황을 얘기하던 도중 방송이 나온다.)

방송: (NR) 잠시 후, 호감도 투표와 마피아의 지목이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표는 플레이어들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명이라도 투표를 하지 않을 시 전원 탈락입니다. 투표 종료 시간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방송 종료음)

육만: 이 와중에 호감도 투표, 가증스럽군..

(그렇게 방송이 끝나고, 방송국 문이 열리며 민구가 들어온다. 그런 민구를 견제하는 옥만.)

민구: (방송국 문을 열며 살며시 들어온다)

옥만: (그런 민구를 바라보며) 민구, 양심이 있다면 당장 꺼져라.

민구: (겁을 먹었지만, 뻔뻔하게) 다..닥쳐, 투표는 정당한 권리라잖아. 니가 무슨 수로 마..막을건데.

(옥만은 화가 치밀었으나, 지금 방송으로 나온 규칙 상 민구의 말이 맞았다. 옥만은 막을 방법이 없었다.)

옥만: 니가 그러고도 사람인 것인가.

민구: (옥만의 말을 무시한 채 투표방으로 들어간다.)

복희: (옥만을 보며) 옥만... 미안해..

옥만: ...

(그렇게 민구가 투표를 끝내고 나오고, 수영을 제외하고 옥만, 복희가 투표를 하러 들어간다. 옥만이 투표를 하고 나오자, 이미 방송국에서는 사라져있는 민구. 그리고 여전히 쇼파에서 깨지 않는 수영. 옥만은 막막한 표정을 짓는다.)

복희: (옥만과 수영을 번갈아보며) 수영이를.. 깨워야 할까?

옥만: (고개를 저으며) 조금만.. 기다리겠다

(그렇게 옥만과 복희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린다. 이 때 시간의 흐름을 30분 뒤 정도로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옥만이 수영을 깨우려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수영도 점차 깨어난다. 이 때 시간은 )

옥만: (시계를 보고 나서) 이제 깨워야겠군

수영: (움찔거리며 깬다) 으으..

복희: 수영아! 괜찮아?

수영: (민구에게 베인 상처를 움켜쥐며) 으으.. 아파..

욱만: 일단 출혈은 멈췄다. 너무 깊진 않지만, 감염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 너 무..

수영: (욱만의 말을 끊으며) 정민구 그 X끼는? 지금 어딨어.. 그 미친 X끼..

욱만: 지금은.. 모른다.

수영: (서럽다는 듯) 나쁜 X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흑흑..

욱만: 수영, 지금은..

(욱만이 수영이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할려던 찰나 복희가 욱만에게 신호를 보낸다. 자신이 말할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

복희: (욱만에게 신호를 보내고 수영에게) 수영아, 지금 당장 너무 힘들겠지만 우리 투표를 먼저 해야할 것 같아.

수영: 투표?

복희: 응, 자정 전에 투표를 다 끝내야 일단 전부 살 수 있어.

수영: 아.. 그 투표.. 지겹다, 너무 지겨워.

(투정을 부리던 수영. 수긍하고 투표를 하러 들어간다. 그리고 투표를 끝내고 나오는 수영. 나오자마자 쇼파에 주저 앉는다.)

수영: 이제 다.. 끝내고 싶어.

(페이드 아웃)

S#4 방송국 내부 (새벽 2시)

(페이드 인)

(불을 끄고, 잠에 들지 못하는 세 사람. 그리고 혼자 책상에 앉아 스탠드를 켜고 무언가를 쓰고 있는 수영. 유언장을 쓰고 있다. 육만은 민구가 자신을 지목했을거라는 생각에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그리고 그런 둘을 쳐다보고 약간의 미소를 짓는 복희.)

수영: (울면서 유언장을 쓰며) 흐흑...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엄마.. 아빠...

육만: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육만)

복희: (둘을 번갈아 보고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띠는 복희)

(페이드 아웃)

S#5 방송국 내부 (아침 8시)

(페이드 인)

(아침이 밝아오고, 수영은 유언장을 쓰던 책상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다. 그리고 육만과 복희는 잠들어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육만: (약몽을 꾼 듯) 약몽을 꿨는데.. 이 곳이 더 약몽이군.

복희: 집에.. 가고 싶어.

(둘이 완전히 지쳐있는 사이, 방송이 시작된다.)

육만: 올 것이 왔군.

복희: 육만, 괜찮아?

육만: 괜찮다. 다만 앞으로 너희가 걱정이군.

복희: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육만: 여길 만든 사람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하나가 남을 때 까지는 다 죽일 것 같군.

복희: 왜? 한명이야?

육만: 한 명 정도는 이 곳에서 나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하니까.

복희: (무언가 들킨 듯이 놀란다.) ... 그렇게 생각해?

육만: (천장을 바라보고 끝으로 갈수록 말을 흐리며) 그렇다.. 오래전 그 녀석이 생각나거든...

복희: (육만의 말에 육만을 살짝 째려보며) 그 녀석?

육만: (약간의 침묵을 하다) ...아니다. 알거 없다.

방송: (NR) 지난 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밤의 희생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마피아가 누구일지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만: (역대급으로 놀라며) ...! 어떻게?

(육만이 놀람과 동시에 문을 열고 민구가 들어온다. 들어오자마자 뻔뻔하게 화를 내는 민구)

민구: (뻔뻔하게 화를 내며) 말도 안돼, 어떻게 의사가 있을 수 있어? 미션은 나만 성공한 거 아니야? 야 최육만, 너 여기랑 한패지? 그렇지 않고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육만: 나도, 당황스럽군.

(그때, 수영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미 깨서 방송을 듣고 있던 수영. 그리고 민구에게 일침을 가한다. 그리고 복희는 마피아를 지목하자고 한다.)

수영: (엎드려 있던 책상에서 일어나며) 야, 정민구. 너 진짜 짐승 X끼다.

민구: X발, 니들은 뭐 다른 줄 알아?

복희: 일단, 우리 마피아 지목부터 하자. 정민구 너는 이제 끝났어.

민구: (코웃음을 치며) 하, 끝나긴 뭐가 끝나? 어차피 내가 마피아인건 다 아는건데? 투표해, 하라고.

육만: 정민구를 마피아로 지목한다.

(육만이 정민구를 마피아로 지목하고, 모두 방송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나오는 방송.)

방송: (NR) 여러분께서 지목하신 “정민구”씨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그럼 마피아로 들킨 “정민구”시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티는 “즉시 탈락”입니다. 또한 사람을 살리는 데 성공한 의사 “유복희”씨에겐 “베네핏”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네핏은 이곳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방송 종료음)

(방송이 끝나자.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내 발작하는 민구.)

민구: 이게.. 말이 돼? 룰이 뭐 이따구야. 그냥 처음부터 다 죽이고 싶었던 거잖아!

수영: 자업자득이야, 정민구.

민구: 그리고 유복희, 니가 언제 미션을 성공 했어? 너도 이상했어. 그 때 지 혼자 쓰러진 척하고.

(민구의 말에 의문을 갖는 육만. 그리고 민구의 말에 반박하는 복희)

육만: 쓰러진 척을 했다고?

민구: 그래, 내가 임수영을 공격하려고 니들이 숨어있던 곳에 들어갔을 때, 난 유복희를 살짝 밀었어. 근데 자기 혼자 넘어지더니 쓰러진 척 혼자 쇼를 했다고! 그래놓고 이제 와선 저 X이 의사였다고? 이게 납득이 돼?

복희: 저 말 듣지마 육만! 재 말은 믿을 필요가 없어.

육만: ... 믿지 않는다.

민구: 이..

(민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복희에게 달려듭니다. 순식간에 달려들어 복희를 밀치는

민구. 복희는 그대로 날라가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집니다. 이에 육만도 민구를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민구: (복희에게 달려가 밀치며) 죽어!

복희: 아악! (날라가 머리를 부딪힌다)

수영: 복희야!

육만: (민구를 밀쳐내며) 미X 새끼가.

(육만에게 밀쳐진 민구. 그대로 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내 나오는 방송과 수면가스.)

방송: (NR) 이제 “정민구”씨의 “탈락”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가스가 나온다.)

민구: (벽에 기댄채로 실성해서 웃으며) 하하, 이제 다 끝이야...

(육만이 문으로 달려가지만 어느 새 잠겨있는 문. 육만이 문을 세게 두드립니다. 그러나 꿈쩍도 않는 문.)

육만: (문으로 달려가 열려고 하지만 열리지 않는 문, 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세게 두드린다) 열어! 열라고!

(그렇게 수면 가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민구, 수영이 쓰러진다. 그리고 최대한 베티다가 결국 쓰러지는 육만.)

육만: (가스를 견디다 무릎부터 떨어지며) 아.. 안돼..

(페이드 아웃)

S#6 아나부스 안

(페이드 인)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 모른다. 의자에 묶여있는 육만. 그리고 앞에 쓰러져 있는 수영. 육만이 작게 읊조린다.)

육만: 수영... 그냥 날 죽여라..

(육만이 의자에 묶여 망연자실해 있는 모습을 비추다. 문이 열리고, 가면을 쓴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육만앞에 서서 무언가를 말한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방송에서 나온 목소리.)

가면: (방송 목소리로) 지금부터, 마지막 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미션은 “의리 게임”입니다. 룰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살 것인지. 눈앞에 사람을 살릴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주어진 시간은 단 5분입니다.

(가면이 말이 끝나고 앞에 있던 책상에 5분의 타이머가 설정된 시계를 올려 놓는다. 그리고 시작되는 육만의 독백)

육만: 살릴 사람을.. 고르라고?

육만: (가면에게) 복희.. 복희는? 복희는 어떻게 됐나?

육만: 젠장... 젠장....!!

(그렇게 육만은 말없이 3분 정도를 흘려 보냅니다. 남은 시간은 1분 30초 타이머가 1분 30초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살릴 사람을 선택하는 육만)

육만: (체념한 듯) 선택하겠다.

육만: 내가 살릴 사람은 “임수영”이다.

가면: (방송 목소리로) ... 확실 하십니까?

육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가면: (방송 목소리로) 그럼, 지금부터 “최육만”씨의 “탈락”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끝나고, 가면은 총을 꺼내어 육만의 머리에 겨눈다.)

가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육만: 없다. (그리고 나서 눈을 감는 육만.)

가면: 알겠습니다. “최육만”씨 탈락입니다.

(가면이 최육만을 총으로 쏘는 소리, 그리고 페이드 아웃.)

Ep5. END